베트남 교민, 근로자, 그리고 유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목요언론인 클럽 회장 박동일 입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꿈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존경과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건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유일의 베트남어 교민 신문으로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벗이자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는 ‘VK Daily’의 깊은 노고와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낯선 땅에서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꽃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낯선 풍경, 서툰 언어로 소통해야 하는 답답함, 그리고 홀로 남겨진 시간에 밀려오는 고향의 향수는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고단함을 견뎌내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학문의 상아탑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저는 지면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의 주역인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군 일터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여러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거친 손과 정직한 땀방울은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하고 아름답습니다.

둘째, 학문에 정진하는 유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잇는 거대한 가교(架橋)입니다. 밤낮으로 책장을 넘기며 흘린 눈물과 노력은 머지않아 양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성이자 리더로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교민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신 강인한 생활력

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은 대한민국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VK Daily’, 여러분의 외로움을 지우고 희망을 채우는 이름

인간은 소통할 때 비로소 고립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베트남어 신문인 ‘VK Daily’의 존재는 단순한 언론 매체 그 이상입니다.

VK Daily는 여러분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정보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단비이자, 고국의 소식을 전하며 마음을 달래주는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든든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VK Daily가 전하는 한 줄의 기사, 한 편의 따뜻한 미담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언제나 든든한 아군이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이주민들이 겪는 소외감을 치유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이들의 헌신적인 필치는 우리 언론계에도 큰 귀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언론인 클럽 회장으로서 저는 VK Daily가 걸어가는 길을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두 개의 고향을 품은 당당한 세계인으로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역사의 모진 풍파를 이겨낸 강인함, 그리고 교육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외국인 체류자’가 아닙니다. 베트남이라는 자랑스러운 뿌리를 두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터전 위에 줄기를 뻗어 나가는 ‘두 개의 고향을 품은 당당한 세계인’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겨울의 칼바람처럼 매섭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았으며, 척박한 땅일수록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목요언론인 클럽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사)목요언론인 클럽은 앞으로도 VK Daily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권익을 옹호하며, 다문화가 시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거대한 원동력임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베트남 교민, 근로자, 유학생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히 유능하고, 한없이 소중하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은 그 고귀한 꿈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VK Daily와 함께 여러분의 매일 매일이 희망과 성취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6. 05. 23.

사단법인 목요언론인 클럽 회장
박동일 드림